

makeup
your
Life

아모레퍼시픽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여성에게 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등 외면의 아름다운 변화를 선물하여
자신감까지 메이크업해드리는 활동입니다.

투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스스로 잊고 있던 아름다움을 **향기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향기로 단장하다
www.apgroup.com

향장

HYANGJANG



8

2019

BALANCED BODY

AUGUST
2019



28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하여, 현재까지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 06 **HYANGJANG NEWS**
이달의 주목해야 할 뷰티 소식
- 08 **BEAUTY SPECIAL**
LOVE YOUR BODY
- 16 **LOOK & FEEL**
BALANCED BODY
- 22 **RECOMMENDATION**
탈수 피부를 위한 수분 아이템
- 24 **BEAUTY LAB**
SPECIAL ITEM FOR BETTER SKIN
- 28 **COLOR TREND**
자연에서 찾은 색, 베이지
- 32 **MAKE-UP PLAY**
DRAW YOUR COLOR
- 36 **MUSE OF HYANGJANG**
호호당 양정은 대표
- 40 **NEWEST**
에디터가 고른 8월의 신제품
- 42 **PLACE**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심 공간
- 46 **LIFE AND MORE**
뷰티 피플 3인의 힐링 타임
- 48 **ESSENTIAL**
명작수, 더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선택
- 50 **RECIPE**
보양식의 대표 식재료, 인삼 레시피
- 52 **ESSAY**
일과 삶의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
- 54 **CULTURE**
내 인생의 여름 영화



COVER

FACE 매직 스타터 01호 로즈 + 블랙 파운데이션 21N1호 바닐라 +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3호 쉬폰 코랄
EYE 브로우 디자이너 팩트 02호 브라운 + 브로우 디자이너 마스카라 1호 우디 그레이 +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호 블랙 + 섀도 듀오 21호
LIP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335호 쇼킹 스트로베리

MAIL
INFO@URBANBOOK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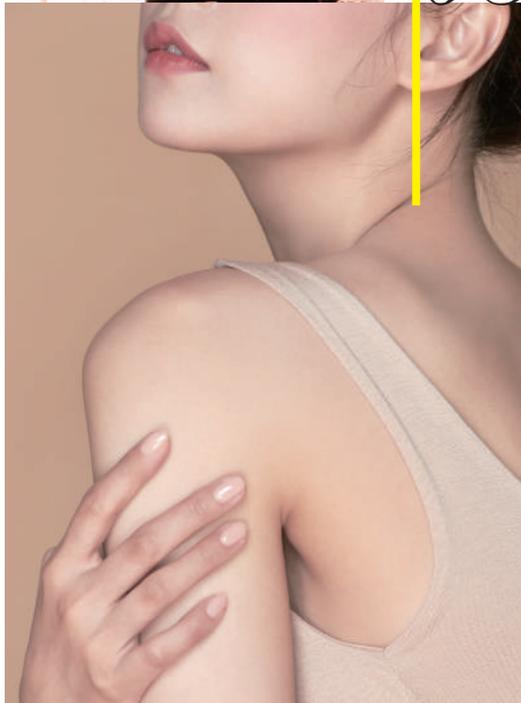
WWW.INSTAGRAM.COM
@HYANGJANG_MAG

WEB
WWW.APGROUP.COM

AB
COPYRIGHT 2019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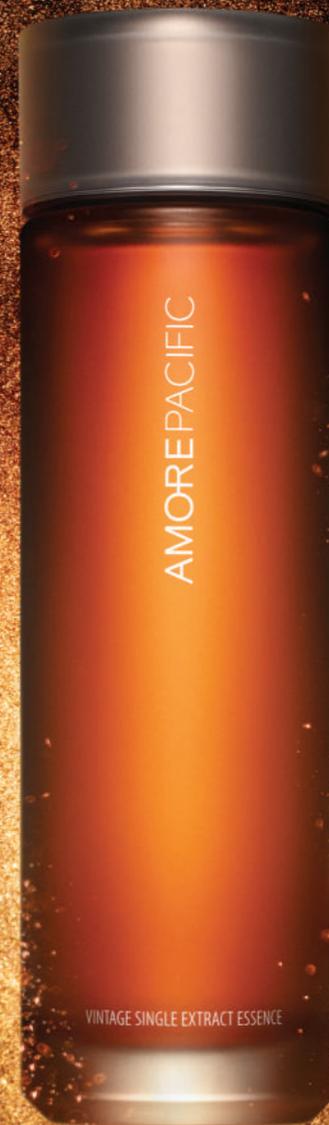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발행 통권 610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세 (주)대신인택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디자인 & 컨셉 기획 아모레퍼시픽 코퍼레이트 디자인팀 제작문의 여유미, 강유선 제품문의 080-023-5454 디자인 목록 스튜디오 기획·편집 어반북스 小工常人 에디터 김태경, 김현의, 오지수 스타일리스트 곽지아

* 〈향장〉은 www.apgroup.com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 판매용 매거진입니다.



08

ESSENCE IS



VINTAGE SINGLE
EXTRACT ESSENCE

TIME RESPONSE
Complete Cushion Compact

녹차꽃의 에너지로 완성한 보석처럼 찬란한 빛



AMOREPACIFIC

The NEWS Beauty



**SENSUAL
AQUA
LIPSTICK**

THE NEW WATER FITTING TINTED LIPSTICK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40%의
수분 함유로 시원하고
부드럽게 발리며,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리얼 컬러 틴티드
립스틱 3.5g / 3만5천원

(August)

GINSENG JOURNEY

말레이시아에서 만나는, 설화수 자음생 라인
설화수가 말레이시아에서 자음생 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설화수 52년간의 인삼 연구를 집대성한 자음생 라인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진생 헤리티지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전달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행사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파빌리온(Pavilion)에서 진행되며, 행사장은 제품 체험존, 헤리티지존, 카페존, 옥 마사저 체험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을 방문하는 고객 누구나 참여하여 설화수 자음생 라인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으며, 현지의 셀럽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317호 델리케이트 리치 3.5g / 3만5천원
헤라 UV 미스트 쿠션 15g×2 / 5만원

MY GLAM SUMMER

헤라, GLAM SUMMER 프로모션 진행

헤라가 8월 한 달간 글램 썸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지난달 블랙 썸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매력적인 여름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헤라의 인기 제품들을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먼저 8월 한 달간 UV 미스트 쿠션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뷰티포인트 5천점과 3천점이 각각 적립된다. 또한 UV 미스트 쿠션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UV 미스트 쿠션을 구매했던 고객들이 위 두 제품을 재구매하는 경우 뷰티포인트 5천점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국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PERFECT couple



임수정과 장기용의 커플 향수

헤라의 대표 향수로 등극한 더 시그니처 오드 퍼퓸과 블랙 오드 퍼퓸이 인기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두 주인공인 배우 임수정과 장기용의 커플 화보에 함께했다. 더 시그니처 오드 퍼퓸은 포털사이트 '유니콘'의 서비스 전략 본부장 역할을 맡은 임수정의 도시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배가시키고, 블랙 오드 퍼퓸은 천재 작곡가 역할을 맡은 장기용의 시크하지만 센수얼한 감성을 보다 돋보이게 해 두 사람의 케미를 부각시켰다. 더 시그니처 오드 퍼퓸은 싱그러운 플로럴 부케에 스파클링한 그린 노트와 과일 상큼함을 더해 도시 여성의 빛나는 클라이맥스를 담았고, 블랙 오드 퍼퓸은 클린한 아쿠아 향과 부드러운 우디 향으로 도시 남성의 모던하고 세련된 매력을 연상시킨다. 헤어 나올 수 없는 두 배우의 매력을 담은 더 시그니처와 블랙은 커플 향수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설화수, 고귀한 적송의 생명력을 담은 진설 라인 심장생 리미티드 세트 출시

적송의 생명력으로 시간을 되돌린 듯 흔들림 없이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는 설화수 진설 라인에서 심장생 리미티드 세트를 출시한다. 평화를 의미하는 사슴, 수호와 복의 상징인 거북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등 예로부터 불로장생을 대표하는 열 가지 물상을 그려낸 전통 심장생 민화에 소중한 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진설 라인은 1월 업그레이드 출시하면서 울진 지역의 50년 이상된 금강송 잎을 사용해 DAA 함량을 기존 대비 2배가량 높였다. 특히, 진설에센스와 진설크림은 청정 자연에서 자란 10년근 산양삼 성분을 함유해 피부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젊은 피부로 가꾸어 준다.

• 진설에센스 심장생 기획세트 38만원대 / 진설에센스 50ml, 윤조에센스 30ml, 공중비누 50g, 진설수 25ml, 진설유액 25ml, 진설에센스 8ml, 진설크림 4ml, 진설마스크 15ml

• 진설크림 심장생 기획세트 47만원대 / 진설크림 60ml, 윤조에센스 30ml, 공중비누 50g, 진설수 25ml, 진설유액 25ml, 진설에센스 8ml, 진설크림 10ml, 진설마스크 15ml



PART
1

LOVE YOUR BODY

Photographer
CHUN YOUNG SANG

다들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실천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위한 생활 습관을 찾아보자.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마인드 세팅이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위축되거나 자신의 외모나 몸매를 보며 우울해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다. 애초부터 사람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받아들이고, 상황과 기준에 맞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야장천 다이어트

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긴 다리와 매끈한 피부, 볼륨감 있는 몸매를 보며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매력과 장점은 칭찬하되, 자신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실수는 범하지 말자. 자, 거울을 보자.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자. 슈퍼모델의 몸매는 아니지만, 지금 거울에 비치는 당신은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스스로가 그렇게 믿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몸을 사랑할 것

1

제아무리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최첨단 기술을 받더라도 촉촉한 피부를 위해 선제 되어야 하는 건 수분 섭취다. 간단해 보이지만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 물을 마실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한번 마실 때 500ml 이상 마시게 되면 콩팥에 무리가 가거나 저나트륨혈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1시간 간격으로 200ml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잔을 마시면 장운동도 되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후 마시는 커피나 음료는 오히려 체내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루에 2리터 수분 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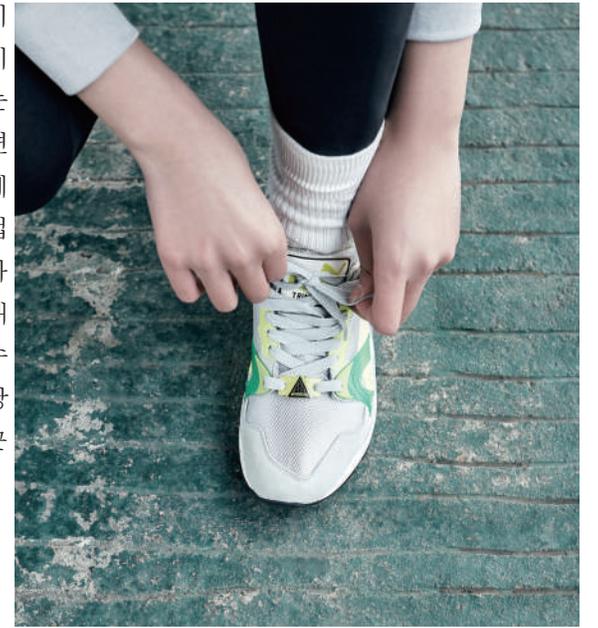
2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필요하다. 날이 갈수록 피로감이 쌓이고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체지방과 근육을 일정량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 단,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면 젖산 분비 등으로 피부의 노화가 가속화되거나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신체에 맞는 적당한 운동법을 찾아야 한다.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나 필라테스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루에 20~30분 내외로 꾸준히 해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손목이나 어깨 등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당한 무게감의 덤벨을 활용한 스쿼트와 런지 동작은 속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

3



피부에 좋은 재료를 가까이하기

4

기름진 음식이나 고혈당 음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현대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은 건강을 비롯해, 피부에 좋은 식재료를 찾아 먹는 것이다.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활성산소로 인해 피부세포가 손상되면서 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선 항산화 물질 섭취가 효과적이는데, 바르는 것 못지않게 피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 등의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ODY Skin PROJECT



Words
LEE JOO YOUNG

뜨거운 날씨로 옷이 가벼워지는 노출의 계절,
얼굴에서 밀려나 홀대받던
바디 피부 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
윤기가 흐르는 매끄러운 바디 피부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하루의
단 10분이다.

얼굴 피부는 스킨과 에센스, 크림까지 매일 하루 두 번 꼼꼼히 바르고, 미스트까지 틈틈이 뿌리면서 정작 바디 피부 관리에는 소홀하다. 아무래도 부위가 넓다 보니 적지 않은 힘이 들어간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자연스레 팔과 다리를 노출하게 되는 여름, 팔다리에 허영게 올라온 각질로 민망해지는 상황과 마주하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리만이 답이다. 바디 피부 역시 '피부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 얼굴과 마찬가지로 바디 피부 또한 관리하지 않으면 노화된다. 허연 각질과 짝짝 갈라진 건조한 피부결을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응급 처지가 아닌,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탄탄하고 건강한 바디 피부를 사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디 피부는 페이스 피부보다 피지선이 적어 보습제를 발라도 쉽게 건조해진다. 어찌다 한 번 바디 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바디 피부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이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과 유분이 뒤엉켜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등과 가슴의 트러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바디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피부 타입에 맞춰 케어하는 거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거나 트러블이 자주 올라온다면 자극적인 화학성분

이 적은 제품을, 건조함이 극심하다면 보습력이 높은 쫀쫀한 질감의 크림을 사용하도록 한다. 여름철에 유독 바디 제품을 바르는 게 꺼려지는 이유는 후덥지근한 날씨로 아무리 가벼운 제품도 답답하고 끈적하게 느껴지기 때문.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단 소량씩 레이어링하듯 바르면 마무리감이 한층 가볍고, 수분 레벨도 상승된다. 일주일에 2~3번 각질을 청소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계. 샤워를 할 때나 바디 케어 제품을 바를 때에 가볍게 롤링하면서 마사지하듯 바르면 피부가 유연해지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부의 습을 높이는 바디 케어 스킨

샤워 직후 젖은 몸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 남아 있는 수분까지 흡수시켜 피부의 수분감을 높여준다. 고민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뽁뽁 피부를 풀어주면서 주무르듯 바르면 된다. 스크럽제는 가끔씩 알이 굵지 않은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길 추천하고, 세정제는 반드시 머리를 먼저 감은 후 사용할 것! 트리트먼트나 린스의 경우 피부에 남아 있으면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빈틈없이 깔끔하게 세정하고, 마무리감이 촉촉한 제품을 사용해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다.

BODY G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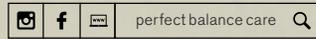
- 5 설화수 궁중비누** 홍삼 진액과 한방 복합 성분이 거친 피부결을 부드럽게 케어하고, 생기를 부여한다. 100g×2 / 4만5천원
- 6 프리메라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 로션** 풍부한 보습력을 지닌 망고 버터와 호호바 오일이 하루종일 피부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한다. 380ml / 3만2천원
- 7 프리메라 아로마 바디 스크럽 워시 (킵람, 프레시업)** 조밀한 거품이 노폐물을 꼼꼼하게 세정하고, 100% 천연 스크럽과 콜링 캡슐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탈락시킨다. 230ml / 2만5천원

- 1 설화수 연성 바디크림** 농밀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퍼지면서 피부 속 깊이 영양으로 채워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 크림 200ml / 8만원
- 2 일리운 세라마이드 아로마 데마일드 크림** 세라마이드 알갱이가 들어 있는 저자극 고보습 크림으로 연약하고 건조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 7가지를 무첨가했다. 170ml / 2만원
- 3 헤라 벨벳 나이트 퍼플umd 바디 로션** 은방울꽃과 아이리시의 매혹적인 향기에 라벤더 오일과 멀티

플라워 추출물이 더해져 기분 좋은 잔향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250ml / 5만원

4 헤라 더 시그니처 퍼플umd 바디 샤워 오일 샤워 후 마치 오일마사지를 받은 듯한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고 향이 오래 머물도록 돕는 유효성분에 의해 잔향이 피부에 오래 남는다. 200ml / 5만5천원

DAILY STRETCHING



Photographer
MAENG MIN HWA

Illustrator
JUNG JI HO



TIP!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도구
마사지 볼 스트레칭 전, 뻣뻣한 근육을 먼저 풀어줄 것.
 크기나 모양이 다양해 부위별로 세심한 케어가 가능하다.
라텍스 밴드 색상별로 각기 다른 탄성을 지니고 있어 몸의 유연성이나 동작의 난이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요가 링 스트레칭 시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몸을 잡거나 받쳐주고, 마사지 기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링.

8:00 AM 균형 잡힌 하루의 시작을 위한 척추 교정 스트레칭



목에서 시작해 등, 허리, 엉덩이까지 신체 주요 골격의 중심이 되는 척추, 틀어진 척추와 굽은 허리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침을 깨우고 척추 균형을 잡아줄 스트레칭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보자.



STEP 1
 엷드려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을 가슴 옆에 둔다.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몸 쪽으로 당겨줄 것. 숨을 들이마시며 손바닥과 손목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린 다음 10초간 유지한다.

STEP 2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오른팔을 뻗는다. 왼손은 머리 위로 뻗어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듯 천천히 내리면서 왼쪽 옆구리를 충분히 이완시킨다.

2:30 PM 집중할 때 튀어나오는 거북목 교정 스트레칭



점심 식사 후 오후 일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푹 튀어나와 있는 거북목을 발견할 수 있다. 거북목 체형인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5세가량 늙어 보인다고 하니, 거북목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집중할 것.

STEP 1
 깍지 긴 두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고 손에 힘을 주어 고개를 숙인다. 그다음 목의 힘으로 손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어 올린다. 목덜미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동작을 5회 반복한다.

STEP 2
 두 팔을 등 뒤로 돌려 손과 손목이 겹쳐지도록 잡는다. 잡은 두 팔을 천천히 왼쪽으로 당기며 목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인다. 양쪽에서 당겨주어 목 근육은 물론 승모근까지 늘려주도록 한다.

10:00 PM 밸런스의 골반왕, 골반 교정 스트레칭



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골반이 틀어지면 상, 하체의 비대칭은 물론 얼굴의 비대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틀어지거나 벌어진 골반의 균형을 맞춰줄 스트레칭으로 바디 밸런스 회복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장식해보자.

STEP 1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양팔은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엉덩이, 허리, 등의 순서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 팽조인 상태로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리고 15회 반복한다.

STEP 2
 바닥에 앉은 상태로 왼쪽 다리는 접어 몸 쪽으로 당기고 오른쪽 다리는 등 뒤로 쭉 편다. 왼쪽 골반과 엉덩이가 바닥에서 최대한 뜨지 않도록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

STEP 3
 오른쪽 무릎을 세워 왼쪽 다리의 왼편으로 놓는다. 몸을 왼쪽으로 천천히 비틀며 오른쪽 무릎을 왼쪽으로 눕혀준다. 이때, 골반부터 허리까지 순차적으로 바닥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움직임을 준다.

BALANCED

BODY

Photographer KIM JAE HOON Model JI HYUN JEONG



헤라 더 시그니처 퍼퓸드 바디 누드 로션
단 한번의 터치로도 완벽하게 스며들어, 마치 제2의 스킨과도 같은 촉촉한 코팅감을 선사하는 3초 흡수 바디 로션 200ml / 6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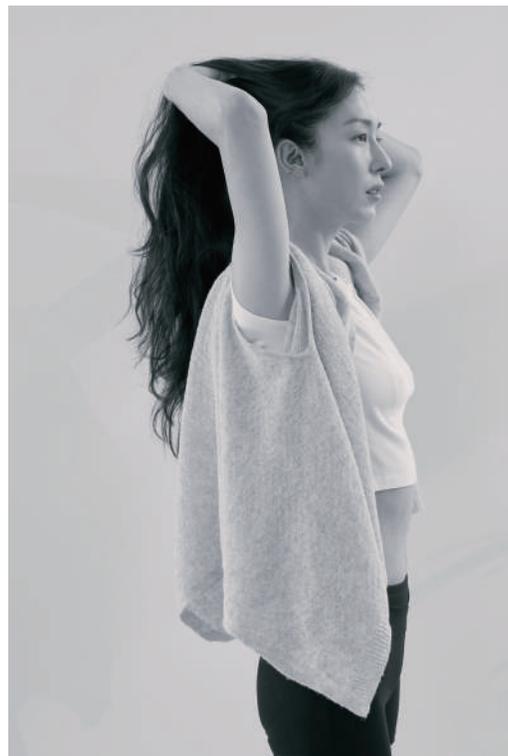
Hair YOON SUNG HO Make-up KIM BU SUNG Stylist KWAK JI AH

비우고 다시 채우길 반복하며 찾아가는 삶의 균형.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는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에서 비롯된다.





BALANCED BODY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듯,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무너지기 쉬운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과 외면의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잡는다.

———— BALANCED BODY ————



긴조해지거나 생기가 없어지는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은 모두 무너진 균형에서 시작된다. 나에게 맞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특별한 케어로 피부를 숨 쉬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경험해보자.



프리메라 더 릴리프 크림
포 스트레치 마크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4주에 걸쳐 완화하고
다양한 바디 피부 고민을
케어해주는 기능성 크림
200ml / 4만2천원



BE MOISTURIZED

땀이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여름, 피부가 촉촉하다고 착각해 수분 공급에 소홀해지기 쉽다. 하지만, 땀으로 배출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빼앗아 어느 때보다 탈수 피부가 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여름, 탈수 피부를 막아줄 똑똑한 수분 아이템이 필요하다.

Photographer
PARK JI HONG



1 수분광 피부의 첫 단계
헤라 셀 에센스
첫 단계에서 수분을 채우고 꼭 잠그는 과정은 피부의 힘을 강화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피부와 닮은 워터 타입 에센스인 셀 에센스는 피부의 힘을 강화해 건강한 피부로 케어하고, 피부 사막화 현상을 막아 촉촉함과 투명함을 선사한다. 150ml / 6만원

2 부드러운 피부결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토너 야생 스트로베리 새싹과 블랙베리 추출물을 담은 알파인 베리 콤플렉스™의 천연보습인자와 천연 유래 히알루론산 함유로 피부 바탕의 건조함을 케어하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가꿔주는 토너 225ml / 3만원

3 맑게 빛나는 윤빛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미스트 피부의 균형을 찾아주는 다섯 가지 귀한 원료를 담은 자음단™이 함유된 이중상의 오일-워터 에센스가 미세하게 분사되어 피부 균형을 가꿔주고 생기 있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고보습 미스트 50ml / 4만원, 110ml / 7만원

4 촉촉한 수분 에너지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크림 로투스 추출물과 베타인 성분이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마이크로 알갱이와 바이오-미네랄 성분이 수분 에너지를 공급하여 항상 맑고 촉촉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해준다. 50ml / 5만8천원

5 수분 공복 현상 케어
헤라 아쿠아볼릭 하이드로-젤 세럼 수분 공복 현상을 집중 케어해 피부가 풍부한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수분-필 세럼. 하이드로-필™ 성분이 함유되어 약해진 피부 장벽을 촘촘하게 케어하고,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유지해줘 늘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 40ml / 5만8천원

CHECK LIST

탈수 피부 진단
다음 체크리스트 중 4개 이상 체크했다면, 즉시 탈수 피부에 대비해야 할 때다.

-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 피부톤이 칙칙하다
- 눈 밑이 어둡다
- 입 주위에 하얀 각질이 보인다
- 눈가에 세로 주름이 생겼다
- 볼 부위가 유난히 건조하다
- 스킨케어 제품이 쉽게 흡수되지 않고 걸돈다

6 축축 생기 피부
설화수 설린수
매화의 응축된 향산화 에너지와 향등열매 성분이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으로 가꿔주는 생키베이스 스킨컨디셔너 150ml / 7만5천원

7 산뜻한 수분 충전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오일-프리 젤 크림
오일 성분을 배제한 포몰라로 산뜻하게 피지를 잡아주며, 천연 유래 보습 성분이 피부 속 수분감을 채워준다. 50ml / 3만7천원

8 그린티 안티에이징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세럼
돌송이 차밭에서 자란 첫물 녹차의 고귀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피부에 전달하여,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30ml / 57만원

9 맑고 탄탄한 피부
설화수 진셀마크
부드러운 텍스처가 촘촘하게 밀착되어 건조한 피부를 촘촘하게 채워주고,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어 밤사이 피부의 온전한 휴식을 도와준다. 80ml / 20만원

10 하루종일 촉촉하게
아모레퍼시픽 디 에센셜 크림 플루이드
녹차 잎에서 얻은 풍부한 보습 영양을 숨겨처럼 부드러운 밀크 제형에 담아 깊숙이 전달하는 플루이드. 수분 보유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Second Moment™를 잡아 촉촉하고 이상적인 피부를 선사한다. 90ml / 12만원

11 몸 속 수분 충전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마시는 저분자 콜라겐 앰플로, 속부터 콜라겐을 촘촘하고 탱탱하게 꽉 채워 준다. 유산균녹차발효추출분말이 함유되어 밤사이 신체를 릴렉스하고 폭 잔 듯한 신체 리듬을 찾아주는데 효과적이다. 25ml×30앰플 / 10만원

12 깊은 보습 충전
설화수 여운팩
황금, 호두, 상백피 등의 성분이 밤사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팩.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잠들기 전 발라도 답답하지 않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120ml / 5만2천원

Special Item for BETTER SKIN

Photographer
PARK JI HONG



**1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라디언스 클리어링
플루이드** 아하(AHA)와
바하(BHA)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게 케어해
건강한 생기를 부여하는
데일리 플루이드
40ml / 6만원
**2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라디언스 크림** 칙칙해진
다크스팟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화사하고
균일한 피부톤을
선사하는 저자극 크림
50ml / 9만원

헤라 거듭될수록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던 탄력과 화사한 생기는
급속도로 저하된다. 화이트닝과 안티에이징의 적기란 없다.
눈부신 피부의 아름다운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지름길은 오직
매일 하는 스킨케어에 달려있다.

+41%
피부 밝기 균일도

-24%
색소 침착 불균일도

96%
사용자의 만족도

다시 눈부신 피부를 위한 화이트닝

피부 잡티를 유발하는 강렬한 자외선, 노화로 인한 균일
하지 않은 피부톤 등 내외부 자극이 증가하면서 화이트
닝은 이제 모든 피부에 적용되어야 할 필수 케어다. 헤라
화이트닝 프로그램 라인은 단 2단계로 피부 본연의 빛을
되살리고, 집중적으로 피부 잡티를 케어해 다시 화사하
게 빛나는 피부 전성기를 실현한다.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AHA+BHA 절묘한 배합
피부톤이 칙칙해지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각질이다. 아하(AHA)와
바하(BHA) 성분이 절묘하게
배합된 화이트 프로그램
라디언스 클리어링 플루이드가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한다.

2

다크 스팟 집중 케어
화이트 프로그램 라디언스
크림에 함유되어있는
멜라솔브™가 기미와 잡티
고민을 덜어주어 화사하고
균일한 피부 톤을 선사하고,
판테놀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본연의 건강한 빛을
찾아준다.

3

탁월한 2 스텝 케어
화이트 프로그램 라디언스
클리어링 플루이드로 묵은
각질을 케어해 투명한 피부
비탕을 만들고, 라디언스
크림으로 눈에 띄는 다크
스팟을 집중 케어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뜨거운 태양과 싸워준 피부를 위해 화이트닝 케어
에 집중해요. 화이트 프로그램 라디언스 크림은 다크 스팟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줘요. 얼굴 전체에 얇게 도포하고, 기미가 많이 올라온 광대 부위
는 특별 케어가 필요해 한 번 더 덧발라주죠.” **김현의** (〈향장〉 에디터)

“화이트 프로그램 라디언스 클리어링 플루이드와 라디언스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화이트닝 효과가 배가 돼요. 아하(AHA)와 바하(BHA) 성분이
함유된 플루이드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크림으로 다크 스팟
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줘요. 기미와 잡티는 물론, 피부톤까지 케어해 눈에
띄게 밝아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지수** (〈향장〉 에디터)

(Editor's comments)

귀한 한방 오일의 섬세한 커스터마이징 케어

피부마다 타입도, 고민도 다르다. 각기 다른 문제점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화수는 귀한 한방 오일을 활용해 여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5가지의 페이스 오일과 핸드크림이 텍스처, 발림성, 향은 물론, 각기 다른 효과를 구현해 섬세함이 깃든 스페셜한 케어를 경험할 수 있다.

QA 여름에 오일을 바를까? 말까? 한여름에도 오일의 힘은 필요하다. 뻣뻣한 피부의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피부 안팎으로 진한 보습을 채워주는 것이 오일의 진가. 여운오일은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 속 깊이 영양과 보습을 충족시켜 건조함을 해소하고, 윤기 있는 피부 바탕으로 가꾼다.

여름에 핸드크림을 바를까? 말까? 여운오일에 활용된 동일한 귀한 한방 오일로 탄생된 럭셔리한 핸드크림. 오일의 깊은 보습감으로 건조한 피부를 케어해 윤기 있는 고운 손으로 가꾼다. 리치와 라이트의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취향에 따라, 계절에 맞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타입은 끈적임 없는 가벼운 사용감으로 여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Editor's comments

“겉은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속건조로 고생하는 에디터에겐 여름에도 오일이 필수적이죠. 매일 밤 크림 단계에서 여운오일을 3방울 손에 떨어 향을 먼저 맡은 후, 손을 비벼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면 얼굴에 누르듯 흡수 시켜요. 깊은 영양감은 물론, 은은한 향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김현의 (〈향장〉 에디터)

“땀과 끈적임 때문에 손을 더 자주 씻는 여름, 핸드크림은 가방 속 필수품 이에요. 물론, 겨울에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타입을 선택하죠. 여름에는 사용감이 가벼운 설화수 핸드크림 라이트를 사용해요. 가벼운 텍스처이지만, 한방 오일을 함유해 깊은 영양감이 느껴져요.” 오지수 (〈향장〉 에디터)

설화수가 만든 귀한 한방 오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항산화 및 보습 효능
항산화와 보습 효과가 뛰어난 해송자유 성분으로 건조한 피부에 건강한 윤기 바탕을 만들어준다.

2

유수분 밸런스
유연하고 부드럽게 퍼발리는 라이트한 텍스처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유수분 밸런스를 찾아준다.

3

홀리스틱 케어
자연의 향으로 이뤄진 5가지의 아름다운 향으로 섬세한 감성을 일깨워 지친 하루의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한다.



1

2

1 설화수 핸드크림 (백은향)
귀한 한방오일이 거칠고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감을 공급하여 윤기가 흐르는 매끄러운 손으로 케어한다. 40ml / 3만원

2 설화수 여운오일 (윤조지향)
청량한 청아지향과 은은한 백화지향, 깊이 있는 윤조지향, 싱그러운 흥서지향, 농밀한 흑여지향의 총 5가지 향과 2가지 타입의 텍스처로 이루어져, 유려한 피부로 케어하는 페이스 오일 20ml / 8만5천원

BORN TO BE NATURAL



자연을 닮은 샌드 베이지 컬러는 고요하면서도 담대하다. 결코 과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디에 매치해도 우아한 본색이 사라지지 않는 샌드 베이지 컬러의 출구 없는 매력.



PANTONE 7507 C
R 202 G 210 B 153
HTML:FC0205



PANTONE 7508 C
R 202 G 210 B 153
HTML:FC0205



PANTONE 728 C
R 221 G 160 B 119
HTML:CDK077

PANTONE 727 C
R 211 G 180 B 143
HTML:CDK49F



PANTONE 728 C
R 221 G 160 B 119
HTML:CDK077

PANTONE 472 C
R 219 G 158 B 109
HTML:ED58D



- 1 헤라 루즈 홀릭 샤인 432호 스튜디오 베이지 3g / 3만7천원
- 2 헤라 색도 홀릭 4D 6호 코코 베이지 / 캐시미어 브라운 / 밀크 베리 / 블랙 카카오 1.8g×4 / 4만5천원
- 3 헤라 섹슈얼 인텐스 글레이즈 405호 아이코닉 베이지 4.3ml / 3만5천원
- 4 헤라 색도 듀오 새틴 24호 바나나 크레페 / 모카 파이 3.3g / 3만5천원
- 5 헤라 립 젤크러쉬 436호 베이지 플랑 3.5g / 3만7천원
- 6 헤라 루즈 홀릭 슬릭 425호 코코아 로코 1.8g / 3만5천원

PANTONE 730 C
R 195 G 101 B 45
HTML:DE42F

올여름에 핫 컬러로 떠오른 네온 컬러가 내년에는 촌스러운 컬러로 전락해 버리는 냉정한 트렌드의 세계에서 돌변하는 흐름에도 길을 잃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고귀한 자태를 유지하는 컬러가 바로 샌드 베이지 Sand Beige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농도만 달라질 뿐 고유의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로 노블레스 컬러로 자리매김해 왔다. 샌드 베이지 컬러가 쉽사리 트렌드 언저리로 밀려나지 않는 것은 유행을 타지 않는 고유의 매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누가 걸쳐도, 어떤 피부 위에 그려져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이렇듯 팔색조 매력을 지닌 샌드 베이지 컬러는 런웨이에서도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심플한 셔츠, 하늘거리는 화이트 팬츠,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게 빠진 슈트 등 어떤 스타일에 접목해도 가감 없이 매력을 발산한다.

Words
LEE JU YOUNG
Support
GETTYIMAGES KOREA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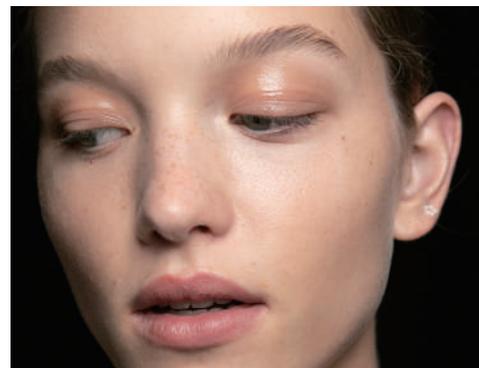
2



3



PANTONE
472 C
R 75.9 G 15.6 B 10.0
HML/LSK/EC



5

BEIGE

EYES



PANTONE
472 C
R 75.9 G 15.6 B 10.0
HML/LSK/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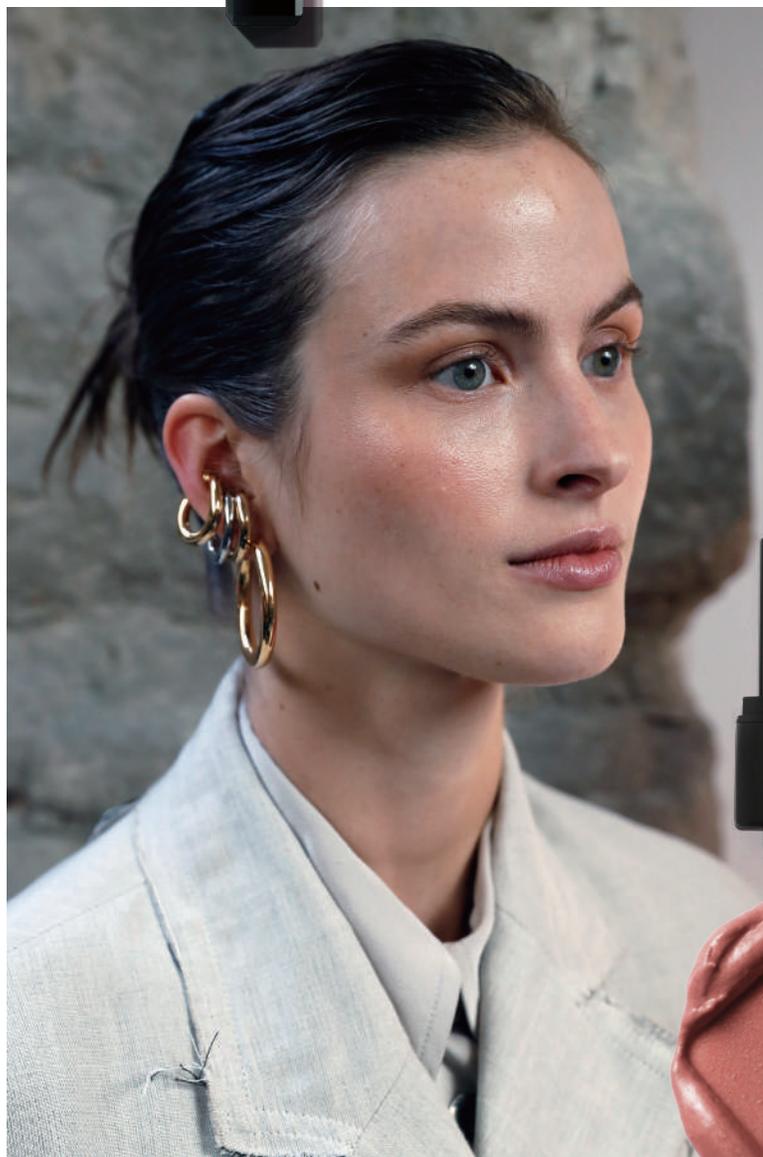
PANTONE
731 C
R 11.0 G 44.0 B 18.0
HML/731/22



5 헤라 새도 듀오 새틴 24호
바나나 크레페 / 모카 파이
보이는 색 그대로 부드럽고
실키하게 표현되는 두 가지
컬러의 아이 새도 3.3g /
3만5천원 6 헤라 루즈 홀릭
슬릭 425호 코코아 로코
정교하고 섬세한 립
메이컵이 가능한 루미너스
매트 포물러의 초고발색
슬림 립스틱 1.8g / 3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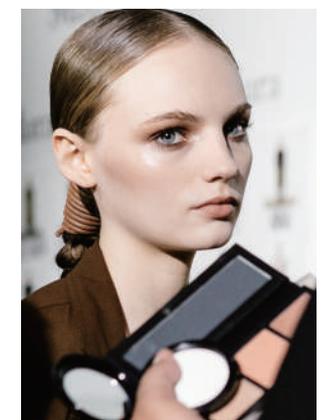
6



1 헤라 센슈얼 인텐스
글레이즈 405호 아이코닉
베이지 압도적인 컬러가
강렬하게 발산되는 고발색
글레이즈 텍스처 4.3ml /
3만5천원 2 헤라 립
젤크러쉬 436호 베이지
블랑 멜팅 젤 텍스처가 맑고
선명한 컬러를 부드럽게
밀착시켜 볼륨감 있는 입술을
완성하는 고풍택 젤 립스틱
3.5g / 3만7천원 3 헤라
새도 홀릭 6호 코코
베이지 / 캐시미어 브라운
/ 밀크 베리 / 블랙 카카오
오묘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완성하는 아이 새도 1.8g×4
/ 4만5천원 4 헤라 루즈 홀릭
샤인 432호 스튜디오 베이지
비비드한 컬러와 반짝이는
윤기로 볼륨감 있는 입술을
완성하는 샤인 립스틱 3g /
3만7천원



4



샌드 베이지 컬러는 언제나 옳다. 핑크빛이 감
돌면 화사한 생기를 띄우고, 질어질수록 포근
하면서 도회적이다.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바르
면 강렬한 원포인트가 되고, 톤온톤으로 그라
데이션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누디한
샌드 베이지 컬러를 입술에 물들이면 청초하면
서도 섹시하다. 날렵하면서도 입체적인 페이스
라인으로 연출하고 싶다면 진한 샌드 베이지
컬러를 광대 부위에 사선으로 넓게 펴 바를 것.
너무 짙게 발색되면 피부가 칙칙해 보일 수 있
으니 톤 조절이 관건이다. 내추럴한 샌드 베이
지 컬러를 화려하게 즐기고 싶다면 펠이 가미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



DRAW your COLOR

Photographer CHUN YOUNG SANG
 Model KIM MI JUNG
 Hair YOON SUNG HO
 Make-up AMOREPACIFIC LUXURY MAKE-UP TEAM
 Stylist KWAK JEE AH

PINK BRONZE

자연스러운 윤기를 머금은 피부 위 사랑스러운 핑크빛을 물들인 러블리 페이스



1

1 매직 스타터 01호 로즈 35ml / 4만7천원
 2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5호 스킵프팅 핑크 10g / 4만8천원
 3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244호 슈가 피치 크림 3.5g / 3만5천원
 4 리치 컬러링 마스크라 79호 래쉬 블랙 6g / 3만5천원
 5 UV 미스트 쿠션 커버 C21호 바닐라 커버 15g×2 / 5만원



2



STEP 1



3



STEP 2

STEP 1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5호 스킵프팅 핑크 컬러를 광대 전체적으로 감싸듯 넓게 펴 바르고, 눈두덩이에도 블러셔와 자연스럽게 연결해줘 화사한 생기를 연출한다.

STEP 2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244호 슈가 피치 크림을 입술 전체적으로 채워 바르고, 립 라인이 너무 뚜렷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더욱 볼륨감 있고 자연스러운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4



5

여름에도 핑크 사랑은 계속된다. 이번 시즌 핑크 메이크업 트렌드는 오로지 핑크 컬러에만 집중하는 것. 핑크 컬러를 입술 가득 채워 발라 입술에만 포인트를 주거나, 조르지오 아르마니 컬렉션처럼 눈머리부터 눈꼬리까지 길게 핑크 컬러를 펴 바르고, 핑크 립스틱으로 마무리해 오로지 핑크 컬러만을 활용해보자. 더욱 과감한 터치를 원한다면, 눈두덩이와 눈 밑부터 옆 광대를 아우르는 C존까지 촉촉한 타입의 핑크 블러셔로 채색해 경쾌한 룩을 완성하는 것도 방법. 이때 입술까지 같은 컬러로 통일하고 피부는 매끈하게 표현해야 더욱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STAY IN BLUE

청량감이 느껴지는 새파란 블루 컬러에 반짝이는 펄이 더해져 신비롭게 빛나는 블루 아이



1

- 1 블랙 파운데이션 21C1호
로제 바닐라 35ml / 6만원
- 2 센슈얼 인텐스 글레이즈
200호 브라이덜 코랄
4.3ml / 3만5천원
- 3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호
블랙 0.35g / 2만5천원
- 4 새도 듀오 글리터 01호
엘리전트 라이트 / 핑키 블루
3.3g / 3만5천원



STEP 1



2

STEP 2



STEP 1
새도 듀오 글리터 01호
핑키 블루 컬러를 점막
가까이 아이라이너처럼
얇게 발라 포인트를 주고,
엘리전트 라이트 컬러를
언더 앳머리 부분에 채워
시원한 눈매를 완성한다.

STEP 2
센슈얼 인텐스 글레이즈
200호 브라이덜 코랄로
입술을 은은하게 연출해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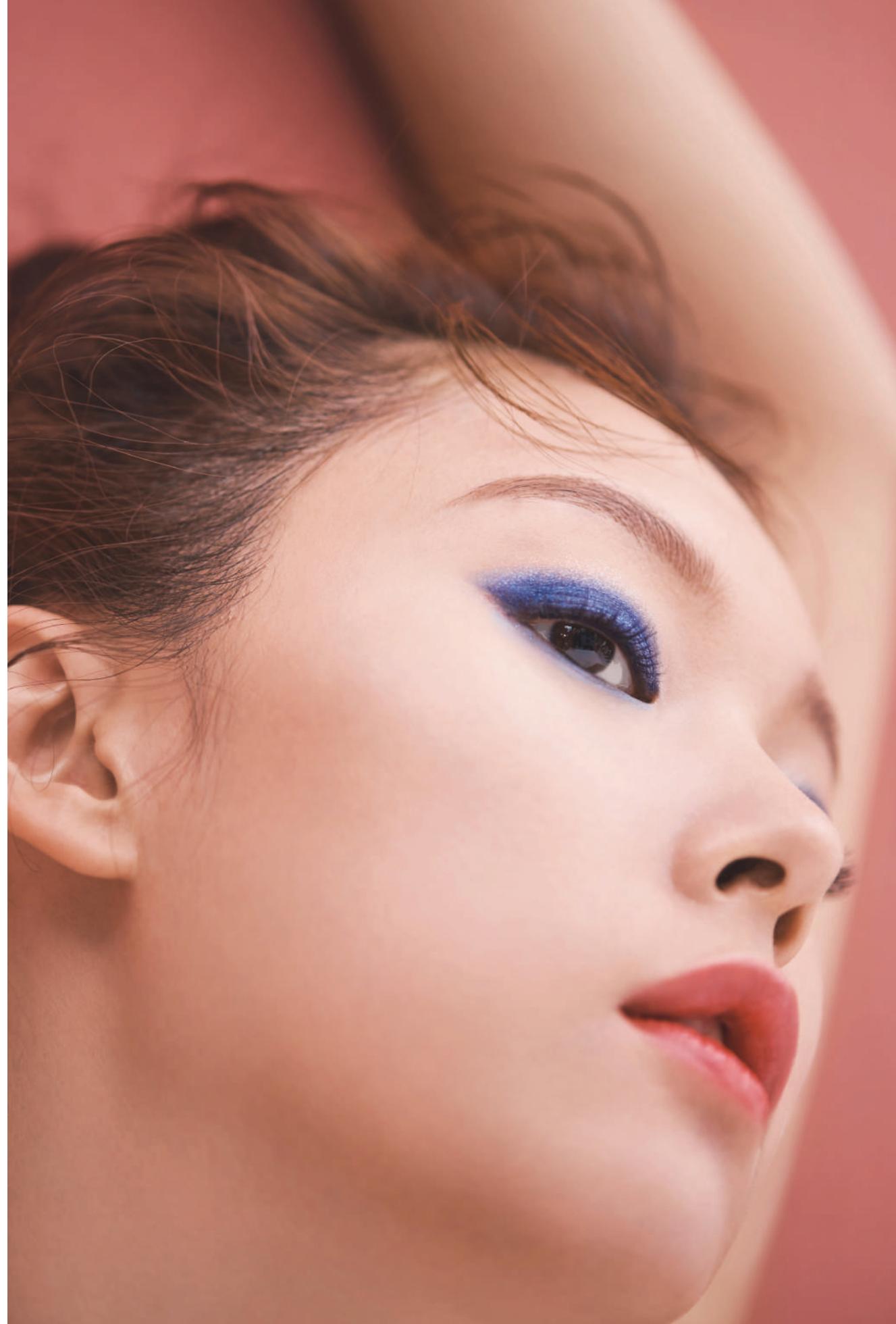


3



4

여름의 끝,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깊고 짙은 블루 컬러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자. 새파란 블루 컬러는 사실 동양인이 소화하기 어려운 컬러
중 하나. 하지만 모양과 두께만 잘 조절하면 트렌디한 블루 메이크업도 어
렵지 않다. 블루 아이 메이크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라인을 되도록 얇게 그
리고 눈꼬리를 길게 빼 날렵하게 연출하는 것. 선명하고 얇은 블루 라인은
시크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으며, 블루 색도는 농도 조절에 따라 색다른
깊이감을 줄 수 있다. 블루 포인트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다면 나머지 메
이크업의 컬러를 덜어내는 미덕이 필요하다.



LA VITA E BELLA

interview O DA HYE(<NYLON> KOREA BEAUTY EDITOR)
photographer KIM JAN DEE
stylist LEE IN HA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좋은 일만 있으라고 말하는
'호호당'의 양정은 대표가 그렇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삶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 믿는다.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다루며, 포장하는 일도 하시죠.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비결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예쁘게 포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컬러와 패턴에는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저는 옛날부터 사랑받았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10년 또는 50년 뒤에도 아름답다고 느껴졌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박물관에 갔을 때 느끼는 기분이랄까요? 그곳에서 오래된 작품을 보며, 가끔 '옛날 사람들도 이 작품을 보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봐도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을까?' 싶은 거죠. 옷이나 화장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 입을 옷을 나중에 들춰봤을 때도 그랬으면 해요. 타임리스를 지향하거든요.

옛것과 요즘의 것을 조화롭게 융화하는 안목은 어디에서 기어어나오나요? '어쩔 수 없었다'라면 적당한 답변이 되려나요? 시대극이나 오페라 의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학창시절에는 그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옛것을 요즘에 맞춰 다시 만들어내는 일이었고, 그걸 보며 멋지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고증을 통해 그대로 재현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드라마와 영화에 맞춰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낀 거죠. 그래서 호호당이 전통용품을 만드는 곳이라기보다 전통에서 벗어나 요즘 생활에 맞는 것들을 만들면서 한국의 색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담아
신체 본연의 생기를 되돌려
주는 고통축 홍삼 앰플
20g×60앰플 / 26만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추천할만한 건 뭔가요? 요리를 좋아해요. 지금도 '호호당'을 통해 여러 작업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요리에요.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 먹는 행위는 삶에 큰 기쁨이 되어 주거든요. 많은 사람이 요리하는 것을 즐거움이 아니라 일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외모를 가꾸고 운동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일 저녁 식사는 꼭 직접 요리해서 남편과 아이에게 먹이곤 하죠. 이런 저녁 식사 시간의 요리를 통해 가정이 행복해지고 모두가 즐거워하면 저의 삶 역시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이며 아름다운 여성이 되길 꿈꾸죠. 맞아요. 그리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스스로 선택한 길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을 하는 나의 모습도 좋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나도 좋아해요. 혹자는 이런 저를 두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한다 여길 수 있겠지만 저와 제 남편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인생 이기에 후회 없이 자신감을 갖자고 자주 이야기해요.

아름다움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이라는 이야기군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불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싶을 만큼 노력하고, 그 뒤에 스스로 칭찬하려 해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저 역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늦게 가지는 것 등의 선택지 속에서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을 믿으며 가치관이 정립됐죠. 매사에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이들은 말투와 표정, 그리고 태도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 말이에요.

자신을 가꾸는데 어떤 노력을 들이나요? 외모를 가꾸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며 살지 않아요. 뽀루지가 생겨도 특별히 뽀 바르거나 피부과를 찾지 않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텐데, 그 시간을 뽀루지에 집중하면 오히려 주름이 생길 테니까요. 단지 건강을 위해 수영을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항상 같은 시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영장으로 향하는 규칙적인 루틴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의 하루가 시작되는 셈이에요. 경험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활기와 상쾌함이 있습니다. 아, 화장품은 선풍수를 좋아해요. 하하.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스러워요. 아이를 낳은 뒤로 감사한 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꽤 늦게 찾은 편인데,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고민하던 과정 끝에 꿈꾸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스럽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징징대거나 얼굴 찌푸리지 않고, 빠르게 그 순간을 벗어나려 해요.

가끔 삶이 시시하다고 느껴질 때는 뭘 하나요? 일이 많은 때는 하루가 마치 초등학교의 시간표처럼 짜여져 흘러가죠. 이런 날이 반복되면 가끔 일의 재미가 반감될 때도 있어요. 다만 저는 '호호당'에서 부끄럽지 않은 작업만 하려 노력해요. 원칙을 지키죠.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 우리가 원해서 선택한 작업이 지루해지면 빠르게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해요. 기획을 정리하자마자 느껴지는 희열이 가장 즐거워요. 우리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해요. 부끄러



양정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브랜드 '호호당'의 대표. 한국의 색이 담긴 생활용품을 만들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중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워요. 다만 지금 우리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자신감을 지녔으면 해요. 워커히릭은 백수를 부러워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회사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서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질투를 느끼잖아요. 정작 그 질투의 포인트는 각자의 상황에서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동안 했던 결정들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지녀야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팁이 있을까요? SNS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해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당신의 나이에는 이것이 적당한 삶이다'라고 잘못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소신을 지키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



1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제주 돌송이 차밭의 뷰티녹차 장원 3호™에서 얻은 앰솔루티™ 성분으로 피부를 집중 케어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배가시킨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세럼 30ml / 57만원

2
빛나는 광채 피부 일명 '반사판 파우더'로 어떤 각도에서도 반사판을 댄 듯 가장 차갑게 빛나는 여름을 완성해줄 UV 미스트 쿠션. 알지만 촘촘하게 밀착돼 피부 결점을 확실하게 커버한다. 헤라 UV 미스트 쿠션 커버 SPF 50+ / PA+++ 15g×2 / 5만원

3
자외선 차단과 미백을 동시에 색소 침착 방지에도 효과적인 미백 선크림. 설화수만의 피부 표면 코팅 제형 기술로 유해 물질이 피부에 흡착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제품. 설화수 상백크림 SPF 50+ / PA++++ 40ml / 7만5천원



editor's PICK

Editor
KIM HYEON EUI, OH JI SOO

무더위에 지쳐가는 8월, 한풀 꺾인 사기를 진작시켜줄 특급 뷰티 아이템들을 모았다.

4
활력 충전 아이템 더운 날씨에는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앰플 명작수를 추천한다. 인삼의 열매(부원료)와 뿌리를 모두 담아내 진하면서도 부드럽다. 바이탈뷰티 명작수 20g×60앰플 / 26만원



6
-4.7℃ 수분 젤크림 쿨 샤프™ 기술의 젤 타입 크림으로 차가운 젤이 뜨거워진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빠르게 수분을 채워준다. 쿨링 효과와 함께 번들거림 없는 산뜻한 제형이라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철에 사용하기 딱!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오일-프리 젤 크림 50ml / 3만7천원



7
3초 흡수 바디로션 '더 시그니처 오드 퍼퓸'의 트렌디하고 럭셔리한 향기를 그대로 담았다.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즉각적인 쿨링 효과와 함께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한다. 헤라 더 시그니처 퍼퓸드 바디 누드 로션 200ml / 6만5천원



8
향기로운 샤워 타임 퍼퓸 특화 포뮬라로 더욱 깊고 진한 향이 욕실 가득 퍼져나가, 스파클링 하고 싱그러운 그린 플로럴 향기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분 좋게 리프레시 하도록 돕는다. 헤라 더 시그니처 퍼퓸드 바디 샤프 오일 200ml / 5만5천원



5
수분이 가득 담긴 레드 코랄 겔크림 센터가 된 듯 자신감을 장착해주는 리얼 컬러 틴티드 립스틱. 비비드한 컬러감이 처음 발랐던 그대로 8시간 동안 지속된다.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317호 델리케이트 리치 3.5g / 3만5천원

The LIFE Beauty



파머스데이 팜당호 근처에 위치한 농장형 정원, 비닐로 만든 그린하우스에서 사계절 내내 푸른 식물들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THE GREEN THERAPY



1



빌딩 숲이 아닌, 진짜 숲을 갈망하는 도시인들을 위해 준비했다. 초록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선사하는 치유의 시간.

공간: 식물원, 보타미, 식물관PH, 열매정원, 파머스데디, 폭스더그린



파머스데디

밭이라고 예뻐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공간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최시영이 꾸민 파머스데디는 2천 평의 광활한 대지에 농장과 온실, 우물과 수로 등이 조화롭게 자리한 농장형 정원이다. 밭을 단순히 농작하는 공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미적 감각으로 땅과 수로를 디자인하고 파머스 마켓이나 팜 파티를 여는 등 밭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생각하는 해외 농촌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만의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온실에서 차와 커피를 마시거나 농장을 거닐며 식물들을 관찰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위치 경기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380
 • 오픈 시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문의 070-8154-7923

2

식물관PH

식물원과 미술관이 합쳐진 공간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온실 형태의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입장료 만 원을 내면 식물원과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원하는 음료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1층엔 크고 작은 식물들과 스톤 오브제가 조화로운 풍경이 눈길을 끌고 2층의 카페테리아에서는 음료를 마시며 아래층의 식물들을 내려다보기에 좋다. 미술관은 3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함께 가드닝 관련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위치 서울시 강남구 광령로34길 24
 • 오픈 시간 화 - 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문의 02-445-0405



보타미

창원에 위치한 카페이자 가드닝 숍인 보타미는 입구부터 양옆으로 빼곡히 들어찬 식물들로 시선을 압도한다. 유명 토분 브랜드 '두 가르송'의 전국에 단 두 곳뿐인 오프라인 매장 중 하나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새로운 토분이 입고되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온 고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나무를 메인으로 한 인테리어는 푸른 식물들과 특히 잘 어울리지며, 울창한 나무와 꽃들이 마치 열대우림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커피 한 잔을 시켜 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곳이다.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270-1 팔라로사 아래층
오픈 시간 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문의 055-261-9746



3



4



- 위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35 상가 a동 208호 오픈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8시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8시
문의 fruitsgarden@verysings.org

열매정원

KEB하나은행이 진행하는 컬처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공간인 열매정원. '열매'와 '정원'이라는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가는 식물 카페다. 들어서는 순간 푸른 식물들과 따뜻한 나무 소재의 가구와 오브제가 어우러져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볼 수 없었던 이국적인 나무부터 선인장과 같은 친숙한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화분은 물론, 가드닝 제품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원하는 식물에 원하는 화분, 심지어는 흙까지 취향 따라 고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카페 콘셉트에 어울리게 딸기 말차, 오렌지 당근 스무디 등 계절 과일이 들어간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식물 관련 클래스 또한 진행한다. 프레시한 과일 음료, 싱그러운 식물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즐겨보기를 추천한다.



5

폭스더그린

20여 년 동안 가구, 제품, 그래픽,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해온 허성하 실장이 운영하는 폭스더그린은 식물을 판매하고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하는 가드닝 전문숍이다.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즉 플랜테리어를 통해 집에서 식물의 싱그러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폭스더그린에 한 번쯤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정원 가꾸기, 조화 작업 등의 다양한 가드닝 클래스를 통해 식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나아가 공간에 어울리는 식물을 정하고, 이를 알맞게 가꿔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 말이다.



- 위치 서울 용산구 소월로 72, 4층
오픈 시간 월-토, 오전 11시 ~ 오후 7시 문의 070-8821-1727



- 위치 서울 마포구 송문16길 20, 1층 오픈 시간 화-토 / 오후 4시 ~ 오후 8시
문의 sikmulseong@gmail.com



공간 식물성

'좋아서 잘 기르고, 잘 길러서 더 좋아지는 원에 생활'을 모토로 운영되는 공간 식물성. 식물과 화분, 행잉 플랜트를 판매하며, 틈틈이 가드닝 관련 클래스를 진행하고, 다양한 식물 관련 도서까지 만나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공간이다. 화분 분갈이와 맞춤 식물 상담도 소정의 비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식물을 사랑하는 염리동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요리생각'에서는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나의 몸과 나만의 공간을 건강하고 싱그럽게 가꾸고 싶은 이라면 꼭 한번 찾아가 보길.

6

MY OWN HEALING TIME

Illustrator
BELLA PARK

바쁜 일상 속 틈틈이 주어지는 나만의 시간.
세 명의 뷰티 피플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해줄 힐링법을 물었다.

양 현 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숲속에서의 산책 생각이 많을 때는 걷는 게 상책. 걷는다는 행위 자체로도 힐링이 되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숲속을 거니는 일만큼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것이 없다. 휴과 식물로부터 느껴지는 싱그러운 향기, 한여름에도 적당히 서늘한 공기, 새 소리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생명의 소중함이나 땅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 같이 숲속에서의 산책을 추천한다.

가장 좋아하는 숲은 제주도의 비자림. 키가 큰 거목들이 운집해있는 비자림에서는 늘 신비로운 힘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다. 그러나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럴 때면 서울 숲을 거닐거나 양재천을 따라 걷곤 한다. 도심 속에 위치해 여러 소음이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꼭 라디오와 함께한다. 좋아하는 디제이의 감미로운 목소리,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음악들과 함께라면 숲속 산책의 힘이 배가 된다.

RULE

정 청 술
모델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필라테스 직업적 특성상 다양한 운동을 접해보았고, 운동이 일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일 하는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힐링 타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다. 필라테스는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 중 하나. 바르고 정확한 자세를 구현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잡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서 잠시나마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힐링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필라테스는 최적의 힐링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RULE

집에 필라테스 기구 중 하나인 바렐이 있어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마무리할 때 마치 의식처럼 운동을 하곤 한다. 바렐은 척추의 이완, 체형 교정, 근력 향상에 두루 좋은 기구라,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지개를 켜듯 몸을 깨워주고 잠들기 전에는 종일 고생한 몸을 풀어주어 푹 잠들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준다. 집에서 바렐을 이용해 셀프로 하는 운동 외에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찾아 전문가의 코치를 받는다. 처음 해보는 동작을 마스터하고 난 후 흘리는 땀과 어려운 동작을 해냈다는 데에서 오는 쾌감은 삶의 원동력이 될 만큼 중요한 요소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목욕 여행을 떠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선호하는 힐링법이지만, 일상 속에서 틈틈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단연 목욕이 아닐까. 적당한 온도의 물을 받은 다음 입욕제를 풀어놓고 몸을 담그고 있으면 따뜻한 물의 감촉과 향기가 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를 되새기게 되는데,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어 좋다. 목욕이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 없이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

RULE

바쁜 아침에는 여유로운 목욕 타임을 갖기가 쉽지 않아, 주로 잠자리에 들기 전 목욕을 하는 편이다. 반신욕도 자주 하는 편인데, 보통 책 한 권을 들고 욕조에 들어갈 때가 많다. 생각이 많을 때는 와인이나 맥주 한 잔을 곁들이기도 한다. 기분 좋은 취기를 통해 잠시 잡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취향에 맞는 입욕제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황 진 아
라이프스타일 에디터



for HEALTHY SUMMER

Photographer
PARK JI HONG



무더운 여름날에는 쉽게 지치는 몸 탓에 마음까지 어지러워질 수 있다. 잃어버린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무기력증을 타파할 해결책이 필요한 순간, 신체 본연의 생명력을 깨워 여름을 보다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줄 특별한 해답을 준비했다.

머칠째 무더위가 지속되어 그런지 기운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네요. 여름철, 흔히 '더위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름철에는 활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입맛을 잃기도 합니다.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 감기에 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기도 하죠. 따라서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특별한 건강관리 팁이 궁금해요. 식욕이 없을 때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입맛을 돋워주는 게 좋습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몸을 움직여 신체 본연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건강 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죠.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인삼의 뿌리와 열매(부원료)를 모두 담은 홍삼 제품의 명작으로,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홍삼의 유효성분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한 특허받은 초고압 천삼화 기술을 적용한 홍삼농축액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더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존료, 착향료, 소포제를 첨가하지 않고 천연성분만으로 맛을 내 홍삼 고유의 깊고 진한 풍미를 그대로 느끼면서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1일 1회, 1앰플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냉온수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바이탈뷰티 명작수로 무더위에 지친 몸에 생기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명작수의 특별한 세 가지

1

프리미엄 홍삼

천삼화 기술*이 적용된 고품격 홍삼농축액

*천삼화 기술 : 단시간에 높은 압력을 주어 홍삼의 유효성분을 최대한 얻기 위한 과학적인 인삼 가공 공정

2

인삼열매(부원료) 함유

4년 이상 된 인삼 일생 중 단 한 번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삼열매

3

3無 배합

보존료, 착향료, 소포제 등 합성첨가물 무첨가로

더욱 안심



명작수

천삼화 기술로 농축한 홍삼과 인삼열매(부원료) 함유. 신체 본연의 생기를 되찾아주는 진한 홍삼 앰플 20g×30앰플 (30일분) / 15만원, 20g×60앰플 (60일분) / 26만원

GINSENG RECIPE

Food stylist
YANG HYEON SFO



불볕더위를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는 것. 대표 보양 식재료인 인삼을 활용한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보양' 레시피를 준비했다.

인삼 홍시 주스

계속되는 폭염에 점점 지쳐가는 여름, 시원한 주스 한 잔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자. 씹살한 인삼의 맛과 향으로 시작해, 홍시의 달콤함으로 마무리되는 꿀 맛이 몸과 마음의 피로를 날려준다.

재료 인삼 1뿌리, 마 150g, 냉동 홍시 2개, 꿀 약간
만드는 법 1 인삼의 껍질을 벗겨 큼직하게 썬다. 2 믹서에 인삼과 마를 함께 넣고 갈아준다. 3 냉동 홍시도 껍질을 제거하고 믹서에 갈아준 뒤, 유리잔에 담는다. 4 그 위에 갈아둔 인삼과 마를 넣어 층을 만든다. 5 기호에 따라 꿀을 넣는다.



인삼 야채 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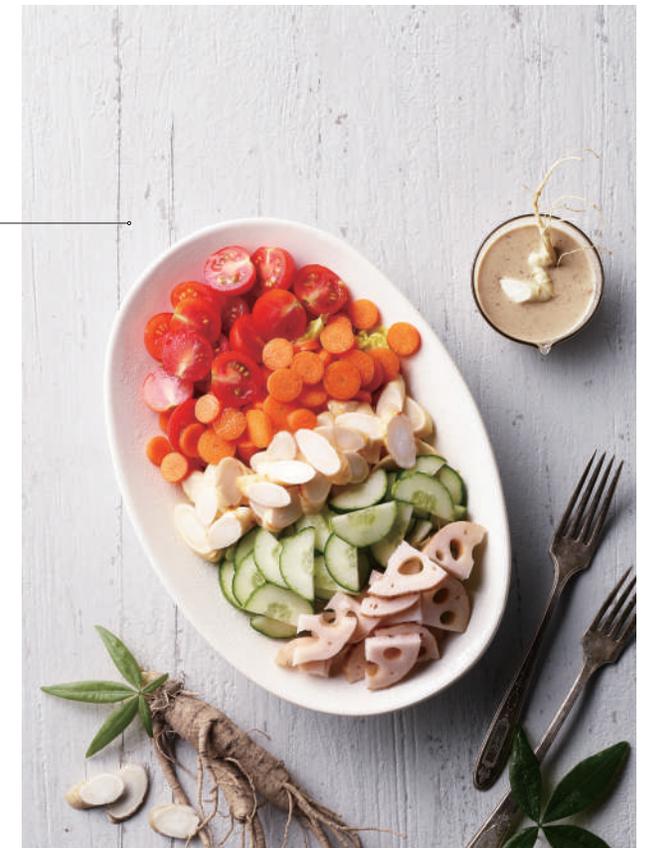
상큼하고 신선한 야채에 인삼을 더해 간단한 레시피로 원기를 보충할 수 있는 인삼 야채 말이. 인삼의 쓴맛을 달콤한 꿀로 중화시켜,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간단한 특별식을 즐길 수 있다.

재료 인삼 1뿌리, 오이 반개, 당근 반개, 래디시 3알, 꿀 3큰술, 홍삼청 3큰술, 잣 10알, 물 3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인삼과 오이, 당근, 래디시를 필링기로 얇게 슬라이스 한다. 2 슬라이스한 인삼과 야채를 넓은 접시에 펼치고 꿀에 재워둔다. 3 꿀 3큰술, 홍삼청 3큰술, 잣 10알, 물 3큰술, 소금 한꼬집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 소스를 만든다. 4 꿀에 재워둔 인삼과 야채를 건져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인삼-오이-당근 순으로 넣어 돌돌 말아서 나무 꼬지에 꽂아준다.

인삼 보양 콤샐러드

잃어버린 입맛을 살리기 좋은 음식 중 하나인 샐러드. 냉장고에 남은 채소를 모아 간단한 콤샐러드를 만들어보자. 샐러드에 인삼을 더하면,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기력 보충 보양식이 된다.

재료 인삼 1뿌리, 닭가슴살, 미니당근, 연근, 오이, 방울토마토, 양상추
***인삼 들깨 드레싱 재료** 인삼 반뿌리, 참깨 10큰술, 땅콩 2큰술, 마요네즈 1큰술, 식초 1큰술, 땅콩버터 1큰술, 간장 4큰술, 꿀 4큰술, 설탕 1큰술, 물 100ml
만드는 법 1 인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 한다. 2 냄비에 물과 청주 2큰술, 대파 1/2대, 통마늘 2개, 굵은 소금 약간, 통후추 약간 넣고 물이 끓으면 닭가슴살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 먹기 좋게 손질한다. 3 깨끗이 씻은 연근을 껍질째 슬라이스한 후, 끓는 물에 식초 2큰술을 넣고 살짝 데친 후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 식혀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4 각종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하고 접시에 양상추를 먼저 담은 후, 닭가슴살을 올린다. 5 나머지 채소를 재료별로 담는다. 6 미리 만들어진 인삼 들깨 드레싱을 뿌려 먹는다.



BALANCE OF WORK and LIFE

writer
LEE YOUNG MI
illustrator
JO SUNG HEUM

일과 삶의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이영미
(마녀체력)의 저자 이영미는 문학사상사, 디자인하우스 등에서 출판 에디터로 일했으며, 웅진지식하우스, 펭귄클라식에서 11년간 70여 권의 책을 만들었다. 현재는 출판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인생학교' 교감 선생님이로 강의를 하고, 라디오와 팟캐스트에서 책을 소개한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 마음은 애당초 없었다. 매사 푹 부러지게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엄마가 종종 콧소리를 내며 비굴한 웃음을 날릴 때가 있었다. 아버지가 지갑에서 호쾌하게 지폐를 빼 드는 순간이었다. '아! 여자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

공부를 계속한답시고 대학원 가는 건 염두에 뒀보지 않았다. 혹시 교수가 된다고 해도 갈 길이 너무 멀었

다. 선을 봐서 부잣집으로 시집갈 확률은 제로였다. 세상에 공짜가 어딤나.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누구든 돈을 권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으리니! 되돌아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개미처럼 일했지만 돈 벌기는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삶은 지난하고도 팍팍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엄마를 붙잡으며 영영

우는 아이를 떼놓는 것? 지옥이 따로 없었다. 다행히 책을 만드는 일이 재미있어서,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지옥은 까맣게 잊었다.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서면 여자의 생활은 많이 달라진다.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삶으로 접어든다. 한창 젊은 나이였지만 몸은 허약했고 정신은 나약했다. 만약 신이 있어서 새로운 젊음과 시간을 다시 선물해 준다고 해도, 그 시절로는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라. 불행하다고 절끔대거나 종일 신세 한탄을 한 것은 아니다. 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었으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살 수 있는 고귀함을 어디에서 경험해 보겠는가. 많은 여성들이 그것만으로 삶이 충분하다고 믿을 정도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유혹이다. 나 역시 시시때때로 그 모성이라는 그물에 걸려 들곤 했다.

마흔 살이 되도록 시시포스의 돌 굴리기는 반복되었다. 직장에선 월급쟁이 에디터요,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 엄마, 며느리였다. 단팥이 빠진 빙수 같은 멍멍한 일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 술을 마시며 고단함을 해소했다. 주말에는 소파에 드러누워서 드라마를 보며 피곤을 풀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하루, 한 달, 일 년.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무난한 삶이었다. 그러다 보면 승진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아이도 크겠지. 오산이었다. 편집장이 되었고, 내 아파트가 생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었다. '이영미'라는 자아 말이다. 일과 삶의 비중에 비하면 하찮을 수도 있는 1%의 자아. 하지만 그게 없으면 평생 미소만 지을 뿐, 호탈하게 웃지 못하는 거다.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희열." 조지프 캠벨이라는 역사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블리스'라고 불렀다. 그것이 나에게 '운동'이었다. 단순히 헬스클럽에 다니거나 동네 수영장을 드나드는 수준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자그마치, 건강하고 젊은 성인 남자도 쉽사리 하기 어렵다는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미처 몰랐던, 숨겨진 잠재력과 숨어버린 자아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뽕뽕 사이클을 타고 한

강 도로를 달릴 때는 어쨌죽지에 날개를 단 것 같았다. 42.195 폴코스를 뛰는 동안에는 오로지 결승점에 끝낼 하겠다는 열망으로 들끓는 마라토너였다. 수영장에 들어가 온몸을 물살에 맡길 때는 아가미로 숨 쉬는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물론 잊고 살던 1%의 '블리스'를 찾는다고 해서, 나머지 99%의 일이나 삶 자체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걸치고 멋진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건 잠깐이다. 꽤중시계가 열두 번 울리면, 받들어 주던 시종들이며 근사한 호박마차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다시 재투성이 아가씨의 비루한 현실이 떡 버티고 있달까. 하지만 당장 현실은 바꾸기 어렵다 해도, 유리구두 한 짝은 앞치마 속에 있다. 유리구두가 상징하는, 희열에 찻던 경험과 혹시 모를 가능성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몸과 머릿속에 이상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더 나아가, 오래 지속되면서 마술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견뎌내고,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미국의 대법관 킴버리지 처럼, 어떤 여성에게 그런 블리스가 '일의 영역'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남자들처럼 뻔뻔하게 욕망을 드러내라. 중요한 순간에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말아라.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따내라. 다만 돈이나 지위를 목표로 두진 말기 바란다. 그것은 가질수록 '좀 더' 중독되는 밭 빠진 독이요, 끝없이 돌려야 하는 쳇바퀴다. 반면 아내나 엄마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만족스러운 여성도 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 구절처럼, "내가 이곳에 살다간 덕분엔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풍요로워졌다면 그것 또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다만 '희생'과 헛갈리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기 바란다. 하지만 만약 열심히 일하는데도 기쁘지 않다면? 성실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뭔가 허전하다면? 그런 여성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고 있다는 '희열'을 찾아야 한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것. 그것이 나한테는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운동이었듯이, 누군가에게는 춤, 요리, 글쓰기, 그림, 승마, 악기일지도 모른다.

그 1%가 충족되면, 일과 삶이 만족스러워진다. 그것이 이야말로 '워라밸'을 지키는 비결이다.

GROW UP *in* SUMMER

Words
KIM HYUN MIN



해변의 폴린느

PAULINE AT THE BEACH, 1983



싱그러운 여름의 이미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영화, 에릭 로메르 감독의 <해변의 폴린느>다. 세일러 칼라 블라우스 차림에 시무룩한 표정을 짓던 단발머리 소녀 열다섯 폴린느(아만다 랑글렛)는 사촌 언니 마리온(아리엘 돔바슬)을 따라 늦은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바닷가 별장에 온다. 마리온은 결혼 생활이 파경 직전에 놓였지만 사랑 예찬자이자 자칭 연애 전문가이고, 폴린느는 휴양지에서 벌어질 로맨스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연애 초보자. 즉흥적인 마리온은 해변에서 알게 된 이혼남 앙리에게 매혹되어 폴린느와의 시간은 뒷전이다. 가엾게도 폴린느는 어른들의 데이트를 따라다니며 따분한 날들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 마리온의 남자 친구인 피에르까지 가

세해 삼각관계를 이루더니 연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지질한 국면으로 접어든다. 다행히 그 무렵 폴린느는 해변에서 만난 또래 남성 실뱅과 데이트를 시작한다. <해변의 폴린느>는 로메르 감독의 '희극과 격언' 시리즈 중 하나로, 사소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 인간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는다. 여기에 어른다운 어른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중 사랑이나 헌신, 열정 따위에 대해 떠들지만 누구에게도 진정성이란 느껴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어린 폴린느가 이 소동 속에서 저 홀로 해탈한 느낌이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라 했던가. 폴린느는 자기합리화에 능한 뻔뻔한 어른들 사이에서 그렇게 한 뼉 자라난다.

MOVIE

뜨거운 햇살과 한바탕 쏟아붓고 지나가는 장마. 여름의 녹음은 그렇게 한 뼉씩, 푸르고 울창하게 자라나 어느덧 한 계절을 가득 메운다. 지독한 성장통을 지나 어른이 되는 과정과도 같다. 여름 영화가 문득 그리워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이 말하는, 보고 나면 훌쩍 자라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해줄 영화들. 여름 안에서 성장하는 나와 너, 우리를 목격할 수 있는 영화 세 편과 어느새 붙어와 열기를 잠재워줄 서늘한 바람 같은 영화 두 편을 골랐다.



우리들

THE WORLD OF US, 2015

여름날의 성장,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다. 초등학교 4학년 선(최수인)은 학교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단짝도, 노는 무리도 없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깍두기 같은 존재다. 그런 선의 앞에 전학생 지아(설혜인)가 나타난다. 그것도 여름방학의 첫날, 마치 꿈결처럼, 순식간에 단짝이 된 둘은 여름 방학 내내 붙어 다니는데, 불길할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시간들이다. 우정 팔찌를 만들고, 부모님이 부재한 집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이 계절이 지나가 버리면 금세 저버릴 봉숭아 잎을 으개 손톱에 물들이며 둘만의 세계를 구축해간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개학 무렵 학원에 등록한 지아가 새 친구 보라(이서연)를 사귀게 됐기 때문이다. 갑소사. 아이들은 겉보기엔 별다른 이유 없이 친해지고 오해하고 싸우고 멀어진다. 언뜻 골짜기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감정의 사건으로 치환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를 지탱하는 세계의 반쪽 같은 친구의 빈자리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다. 어느 정도 세상의 때가 묻은 채로 살아가는 성인 관객에게도 정서적 파동이 대단히 큰 영화다.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의 무른 감정을 날 낚이 환기한다. 하물며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런 상처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까지 가닿는다. 내 마음처럼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김현민
영화 전문 잡지 <스크린>, <무비위크> 기자를 거쳐, 현재는 프리랜스 영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스윙걸즈

SWING GIRLS, 2004



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보충수업에 한창인 소녀들도 있다.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스윙걸즈> 이야기다. 13명의 여고생들은 수학시험에 낙제한 대가를 호되게 치르는 중이다. 교실 한구석에서 무료하게 창밖을 바라보던 토모코(우에노 주리)는 교내 밴드부가 깜박 잊고 간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겠다는 묘안을 짜낸다. 배달을 떠난 토모코와 친구들은 한눈을 팔다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고, 그 탓에 밴드부는 상한 도시락을 먹고 단체 식중독에 걸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밴드부의 임시 멤버가 된 소녀들. 구제 불능처럼 보이던 그녀들의 '스윙 재즈' 입문기다.

처음엔 색소폰의 바람 소리로 내지 못하던 아이들이 특별 훈련을 거쳐 차마 들어주진 힘들지만, 간신히 한 곡을 완주하게 된 순간은 희열 그 자체다. 관객과 소녀들은 어느새 낯설던 스윙의 세계에 폭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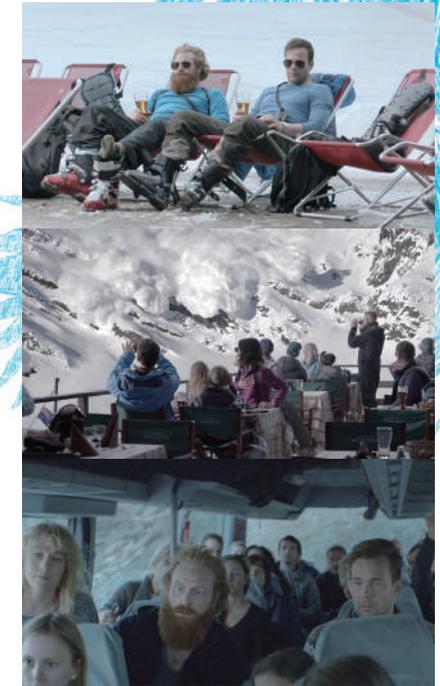
진다. 공부도, 취미도,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해 본 적 없던 인물들은 개인 악기를 사겠다는 일념으로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산에 올라 버섯을 캐다 출지에 멧돼지까지 잡는다. 당장 재활용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도 될 만큼 낡아빠진 중고 악기를 손에 넣어 갈고 닦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몰입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모래알 같던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 성장하는 풍경이다.



멜랑콜리아

MELANCHOLIA, 2011

더위를 이겨내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는 오싹함을 즐기는 것이다. 이쯤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재난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 싶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다. 이 영화는 크게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대저택에서 열리는 저스틴(커스틴 던스트)의 결혼식 사건이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우울한 신부 저스틴을 보며 관객은 의아함을 느낄 거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2부는 지구와 행성 충돌 사건이다. 우울증이 악화된 저스틴은 언니 클레어(샬롯 갱스부르)의 보살핌을 받으며 언니 가족과 대저택에 머물고 있다. 이 작품이 독특한 지점은 바로 여기서. 영화는 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서스펜스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미 오프닝 장면에서 지구가 행성과 부딪쳐 가루가 될 것을 예고, 아니 폭로하고 있다. 영화의 관심은 지구 멸망이 도래한 이 시점에 어째서 저스틴은 점차 상태가 나아지고, 지적이고 침착하던 클레어는 불안과 공포로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것이다. 트리에 감독은 두 사람의 감정에 적극 동참하기를 제안한다. 저스틴 유형의 관객이라면 극도의 해방감을, 클레어 유형의 관객이라면 극도의 두려움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포스 마주어 : 화이트 베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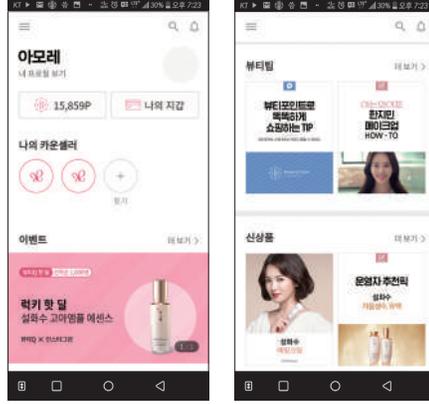
FORCE MAJEURE, TURIST, 2014

이번엔 아예 계절을 바꿔보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 리조트에서 펼쳐지는 블랙코미디.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포스 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이다. 스키장 슬로프에 있는 야외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인 단란한 한 가족, 갑자기 인공 눈사태가 발생한다. 하얀 눈 벽이 모두를 뒤덮어버리기 직전, 남편 토마스(요하네스 바 쿤게)가 벌떡 일어나 부리나케 도망친다. 어린 아들이 아빠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말이다. 다행히 상황은 해프닝으로 끝났고, 당황한 가족은 오히려 침착하게 식사를 이어간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굳건해 보이던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킨다. 아내 에바(리사 로벤 콩슬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편을 용서하기 힘들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더구나 토마스는 도망간 적이 없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머리카락까지 화가 난 에바는 친구들 앞에서 그날 휴대폰으로 녹화된 동영상 플레이해보자고 나선다. 붕괴 직전의 토마스네 가족은 다시 봉합될 수 있을까? 외스틀룬드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 특히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실제로 자연재해, 인질극, 배의 침몰 등을 경험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이혼을 겪었다." 시리도록 하얀 설원의 비주얼보다 살얼음판을 걷는 가족의 하루하루가 더 아찔하게 느껴지는 영화다.

8월 뷰티Q 소식 확인하기

새로워진 뷰티Q에서 더욱 재미있는 뷰티팁과 다채로운 상품정보를 만나보세요!

- 나의 뷰티포인트부터 구매상품까지 거래 내역을 한 눈에.
- 뷰티Q 고객에게만 드리는 추가 포인트 혜택과 상품 평가단의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용 스토어에 '뷰티Q'를 검색하고 설치하세요.
IOS 앱 스토어 이용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이용

아모레퍼시픽 비즈니스 센터

카운셀러와 고객에게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어울림의 장소로, 별도 예약 없이 상시 방문 가능한 뷰티&체험 서비스 공간입니다.



※비즈니스 센터에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모든 뷰티 클래스는 무료 강좌로 진행됩니다.
※무료 뷰티 클래스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오니 센터별 뷰티 클래스 일정 확인 후 참여해주세요.

● 비즈니스 센터 지점 안내
부천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31-5, 7층 032-328-9870

대전점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8 명신빌딩 7층 042-633-8802

광주점 광주 서구 죽봉대로 68 다나 메디컬 센터 8층 062-352-4311

부산점 부산 진구 서천로 10번길 28 오기빌딩 2층 051-808-3617

대구점 대구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빌딩 17층) 053-742-9986



누구나 방문하면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 서비스

- ① 카페테리아**
별도의 신청없이 카운셀러와 고객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며, 차 한잔과 함께 고객, 그룹원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 ② 방판 브랜드 경험**
자유롭게 방문하여 방판 브랜드 제품을 편안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 ③ 각인 서비스(부천점 제외)**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제품에 원하는 문구를 새겨드리는 각인 서비스입니다.
- ④ 피부 / 체성분 측정**
피부(잡티, 주름, 모공, 수분, 피부, 나이)와 체성분(골격근, 지방)을 측정하여 맞춤 카운셀링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⑤ 소름**
설화수와 헤라 브랜드로 연출하는 2가지 타입의 화장대뿐만 아니라 내가 꿈꾸는 뷰티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⑥ 두뇌 건강 측정**
두뇌 나이 / 스트레스, 신체 나이 /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서비스입니다.